

PACKAGING NEWS



협회 · 회원사

- (사)한국포장협회, 제 286차 이사회 개최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 위원회 개최
- (사)한국포장협회 2024 포장인 포럼 성료
- (사)한국포장협회 5월 골프동호회
- 동원시스템즈, 미주 시장 알루미늄 수출 감소에 영업익 ↓
- (주)한국알미늄 2차전지 셀파우치 생산 MOU
- 오리온 “글로벌 식품산업 이끌 인재들, 적극 지원 바랍니다”
- 오리온, “내 이름과 사연 담긴 초코파이 먹어 봤어?!”

업계

-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체육대회 성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 부천시 뷰티산업 기업지원
- SKC, SK리비오 베트남 생분해 소재 생산시설 착공
- 정식품, बे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 세븐일레븐, PB 컵 커피, 포장재 디자인 등 리뉴얼
- 한국필립모리스, 주요 편의점 광고 보드 디지털로 교체
- 동성케미칼, 생분해성 포장재 상용화 박차
- CJ제일제당, 카카오메이커스와 햇반 용기 재탄생 시킨다
- 오토닉스, 레이저 스캐너 LSE3 시리즈 출시



(사)한국포장협회

제 286차 이사회 개최

포장인 포럼, 회원가입 논의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창순)가 지난 5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 286차 이사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 제41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차이나플러스 2024 파견보고, 2024 해외전시회 참가 계획, 포장인 포럼 진행, 신입회원 가입 심의,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지역모임 지역장 선임, 정관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했다.

포장인 포럼은 5월 22일 '생성형 AI'에 대해 진행하며 2024년 해외 전시는 10월 튀르키예 유라시아팩 참가, 해외 유수의 포장관련 전시회 참관 등도 논의했다.

회원가입 심의에서는 (주)제이에스팩, 예스팩에 대해 가입을 승인하고 협회 회원들과의 융합과 제도권에서의 공정거래 활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 특성을 고려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해 지역모임에 참석할 명단을 작성해 운영하고 지역장을 새로 선임하기로 했다.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창순)가 지난 5월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8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총회사항인 정관변경에 대한 내용은 사무국에서 정리해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협회의 다음 이사회는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

회원간 정보공유 강화

부실업체 피해 줄일 것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위원장 소형섭)가 지난 5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잉크분과위원회는 최근 업계동향, 전망 등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회원간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회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등 공존공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적으로 외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 잉크업체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하기로 했다.

소형섭 위원장은 “회원사들만이라도 경쟁을 하지 않고 부실 유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잉크분과위원회는 포장업계 발전을 위해 협력, 협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위원장 소형섭)가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사)한국포장협회

생성형 AI 주제

2024 포장인 포럼 성료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창순)가 지난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 호텔 5층 루비홀에서 개최한 제7차 포장인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윤준호 구글 상무는 이번 포럼에서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챗(Chat) GPT와 구글에서 선보인 바드(Bard) 등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생성형 AI’를 주제로 강의했다. 포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적용 사례 등을 찾기 어려워 보다 구체적인 진행이 이뤄져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의 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며 활기를 띄었다.

“챗봇 검증·물류시간”이나 “구글 클라우드가 포장 관련 분야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의 질문에 윤 상무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질문에 진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거나 “오픈소스 챗봇 중 메타가 내놓은 라마가 연결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 한국포장협회는 회원사들 간 지식정보 교류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매년 5월과 10월 총 2회에 걸쳐 포장인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장인 포럼이 정보교환의 장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포장협회는 회원사들 간 지식정보 교류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매년 5월과 10월 총 2회에 걸쳐 포장인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5월 골프동호회

건강 위한 체력증진 도모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호회(회장 김보철)가 지난달 22일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동호회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물론 정보교류 화합을 다지는 모임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운동시간의 조정도 검토하여 2025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 김보철 동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호회가 발전적이고 회원간 교류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골프동호회는 동호회 운영의 목적은 회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협력과 협업을 통한 화합에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보철 동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호회가 발전적이고 회원간 교류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순 협회장은 “동호회가 협회의 발전과 단합을 이끄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우승은 한종호 (주)서신 전무이사, 니어리스트 이현철 (주)서일 대표이사, 룡계스트 강성공 (주)삼원기업 회장, 특별상 안현숙 (주)대영기업 전무가 차지했다.

한국포장협회 골프동호회 6월 모임은 26일에 있다.

동원시스템즈

미주 시장 알루미늄 수출 감소에 영업이익 ↓

동원산업, 소재·건설 사업 부진에 1분기 영업이익 ↓



▲ 동원시스템즈 CI

동원시스템즈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4일 동원시스템즈 등에 따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6%, 9% 줄어든 3091억원, 161억원으로 파악됐다. 미주 시장 알루미늄 수출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동원시스템즈는 동원산업의 소재 사업 계열사다.

동원산업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하락한 11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 줄어든 2조2419억원으로 나타났다.

참치 어획 호조로 수산 부문과 내식 수요 증가에 식품 부문이 성장세였지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소재와 건설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산업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1% 상승한 327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참치 어획과 수산물 판매 사업 호조에 따라 이 같은 기록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트렌드에 맞춰 가성비 높은 실속형 선물세트와 가정간편식(HMR), 유제품 등의 판매에 주력한 식품 사업 계열사인 동원F&B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1190억원, 49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14.8% 증가했다.

동원건설산업도 건설 경기 불황에 따른 수주 감소로 매출액이 줄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전사적인 수익성 개선 등 내실 경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국알미늄

2차전지 셀파우치 생산 MOU

중대형 2차 전지 제품(186 μ m) 개발에 박차

(주)한국알미늄은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의 GOGLIO S.p.A사와 2차 전지 셀파우치 생산에 관한 생산 노하우를 교환하고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MOU를 지난 2024년 5월10일 체결했다.

(주)한국알미늄은 (주)베이스의 계열사인 상장회사 (주)까뮤이앤씨의 자회사로 2차 전지용 소형 및 중대형(156 μ m) 셀파우치 제품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자동차 및 ESS 시장 진입을 위한 양산 체제 구축을 준비 중인 한편 중대형 2차 전지 제품(186 μ 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 배터리 산업 진출을 위해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과제인 친환경 비크롬계 표면 처리 기반 고밀착성 중대형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제조기술 개발을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화



▲ Franco Goglio 회장, 김창호 한국알미늄 대표.



학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연구 개발하고 있다.

1850년 설립한 Goglio사는 174년 역사를 가진 회사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중국에 8개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 국가와 아시아 남동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생산 제품은 식품(커피, 분말, 고체 또는 액체식품, 즉석식품), 화학제품, 애완동물사료, 가정 및 개인 위생용품 진공, 고온충진 또는 무균포장 제품 및 캡슐용 제품(진공팩, 소프트팩, 캡슐용 다중팩)을 생산하며 종업원수 2,000명, 2023년 기준 매출 500만 유로(한화 7,382억원)를 기록했다.

오리온

“글로벌 식품산업 이끌 인재들, 적극 지원 바랍니다”

2024년 생산관리 채용 연계형 인턴십 모집

2024 오리온 생산관리 채용연계형 인턴십

2024.5.20(월) 22: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직종: 생산관리(QM) 취무내용: 제품 품질 관리 및 개선, Food Safety 관리 등 근무형태: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 면접 후 정규직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요건: '24.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학사 이상), '24.06-07 인턴십 가능자 채용서류: 온라인 지원서 접수(orion.recruiter.co.kr) 주요사항: 식품 관련 전공자, 외국어 능통자
--	--

오리온 인턴십 지원 바로가기

▲ 인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을 통해 선발하며 총 4주간 인턴십 프로그램 후 최종면접 결과에 따라 정규직 입사 기회가 제공된다.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리온과 글로벌 식품산업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이 2024년 생산관리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모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리온에 따르면 지원서 접수 기간은 2024년 5월 20일 오후 10시까지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2024년 8월 4년제 정규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이며 모집 분야는 공장 생산관리 부문이다. 인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을 통해 선발하며 총 4주간 인턴십 프로그램 후 최종면접 결과에 따라 정규직 입사 기회가 제공된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해 우대한다.

지원자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무 소개, 복리후생, FAQ 등 채용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리온

“내 이름과 사연 담긴 초코파이 먹어 봤어?!”

초코파이情 50주년' 기념 소비자 소통 캠페인



▲ 초코파이情 50주년' 기념 캠페인에 맞춰 제작 예정인 초대형 초코파이 패키지.

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이 ‘초코파이情’의 50주년을 맞아 소비자 소통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리온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초코파이의 50번째 생일을 소비자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리온은 6월 25일까지 초코파이에 얽힌 기억을 공모해 제품에 담는 ‘나의 정(情) 이야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작 중 감동적이면서 재미있는 사연의 30명을 선정해 최우수상을 수여하고 당선작은 50주년 기념 특별 패키지에 본인 이름을 인쇄, 8월 말까지 전국 유통 채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각각 2백만 봉지, 총 6천만 개 초코파이에 새겨 정(情)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200개입 초대형 초코파이 패키지도 증정할 예정이다.

‘정(情) 이야기’를 다수 작성한 참여왕, 이벤트를 많이 공유한 배달왕 등 총 120명을 뽑아 초코파이 오리지널과 바나나맛, 초코파이 하우스 등의 선물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50주년 기념 제품 포장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0주년 한정판 패키지도 선보인다. 1974년 첫 출시 때부터 1989년, 2006년, 현재까지 각 시대 추억 속 디자인 4종을 특별 제작할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여고생부터 직장인,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친 소비자 조사에서 ‘학창시절 친구들이 준비해준 초코파이 케이크’, ‘군대 화장실서 몰래 먹었던 눈물 젖은 초코파이’, ‘어릴 적 할머니가 손에 쥐어 준 초코파이’ 등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초코파이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 5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소비자의 기억이 제품 포장에 새겨지게 된다”며 “반 백 년, 세대를 이어 즐기는 과자인 만큼 모두 함께 축하하는 이벤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p>공성기업(주) 1981년 6월 20일 43주년</p>	<p>(주)삼성인크 1977년 6월 21일 47주년</p>
<p>삼아알미늄(주) 1969년 6월 25일 55주년</p>	<p>(주)서일 2010년 6월 1일 14주년</p>
<p>신성이노텍(주) 1986년 6월 1일 38주년</p>	<p>(주)에이치피엠글로벌 1984년 6월 19일 40주년</p>
<p>위더스케미칼(주) 1999년 6월 24일 25주년</p>	<p>(주)케이팩 2008년 6월 25일 16주년</p>
<p>태화정밀 1992년 6월 24일 32주년</p>	<p>(주)필맥스 2003년 6월 1일 21주년</p>

오리온 초코파이는 지난 1974년 출시 당시 국내 초코 과자가 전무하던 시절 초콜릿과 비스킷, 마시멜로우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과자로 호응을 얻었다.

1980년대 유사 상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경쟁이 치열해졌다. 1989년부터 ‘정(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990년대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에서 현지 식문화를 고려한 30여 종의 다양한 맛으로 생산되고 있다.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한 해 35억 개 넘게 판매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글로벌 누적 매출액 7조 원을 돌파했으며 판매량은 지구 130바퀴를 돌 수 있는 460억 개다.

올해 2월 마시멜로 대신 크림을 넣은 ‘초코파이 하우스’ 2종을 선보였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체육대회 성료

회원, 가족 80여명 참석 화합 소통 강화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회장 전현수)가 지난 5월18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대명초등학교에서 개최한 2024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한국기술인협의회 회원들과 가족 등 모두 80여명이 참석했다.

청·백 팀으로 나눠 진행된 축구, 농구, 족구 3개 종목의 체육 활동을 통해 회원들 간 활발한 교류 활동이 이뤄졌다.

회원들은 자사와 관련된 제품들의 물품과 현금을 찬조해 참석자들이 푸짐하게 나눔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용성우 명예회장은 아들, 손자가 함께 참석하는 등 회원 전 가족을 위한 행사임을 증명했다.

회원들은 밝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회원 간 안부와 화합을 다지기도 했다.

전현수 회장은 “회원들 모두 행복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는 매년 체육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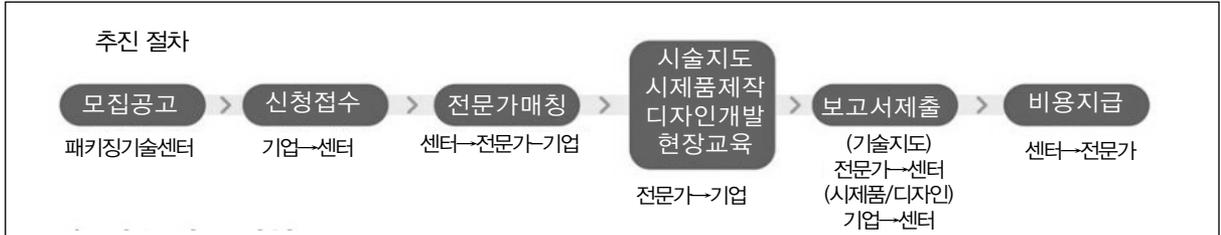
부천시 뷰티산업 기업지원 나선다

기술지도·컨설팅, 디자인 개발·시제품 제작, 현장방문교육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올해도 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뷰티 제품의 지속가능한 패키징 개발 기술지원에 나선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는 본사 또는 공장이 부천시에 소재하는 뷰티 관련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컨설팅, 디자인 개발/시제품 제작, 현장방문교육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패키징기술센터에 따르면 5개사 내외, 1개사 최대 3회 지원되는 기술지도/컨설팅은 기술, 경영, 마케팅, 디자인, 지적권 분야 등 전문가 컨설팅과 수요조사를 통한 기업 전문가 1:1 매칭 컨설팅 등이 진행되는 한편 8개사 내외(1개사 최대 300만원) 지원되는 디자인 개발/시제품 제작은 뷰티 패키징 제품의 외형, 성능, 기능 향상 및 고급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을 비롯 디자인 개발 완료된 제품에 한해 뷰티 패키징 제품의 시제품 제작을 돕는다. 4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방문교육에서는 뷰티산업 관련 맞춤형 현장 방문 교육, 뷰티산업 제품 개발 및 시장개척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



▲ 추진 절차

장 수요조사 기반 교육을 지원한다. 2024년 5월 13일부터 이메일(yhyou@kitech.re.kr)을 통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접수하면 선착순 마감후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032-624-4759로 문의하면 된다.

SKC

SK리비오, 베트남 생분해 소재 생산시설 착공

연산 7만 톤 규모, 현지 플라스틱 기업과 친환경 소재 생태계 구축

SKC(대표이사 박원철)의 친환경 소재사업 투자사 SK리비오가 생분해 소재(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 PBAT) 생산공장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5월 13일 SKC에 따르면 SK리비오는 5월 1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이퐁시 경제특구에서 PBAT 소재 생산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SK리비오는 SKC가 고강도 PBAT 소재 사업을 위해 종합식품기업 대상과 지난 2022년 설립한 합작사다. SKC는 앞서 2020년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PBAT 기술 도입 후 꾸준한 연구개발로 상업화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1단계로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는 SK리비오의 베트남 PBAT 생산시설은 연면적 2만2389㎡ 규모로 단일 공장인 7만 톤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2025년 3분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리비오는 추가 증설이 가능한 부지도 미리 확보했다고 밝혔다.

SK리비오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하이퐁시는 수도인 하노이, 남부의 호치민시 등과 함께 베트남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베트남 제1의 항구도시이자 핵심 산업도시로 꼽힌다. SKC 생분해 소재 생산시설이 자리 잡을 하이퐁시 경제특구는 항만, 물류 인프라가 최적화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곳 생산시설에서는 원재료 배합 및 에스테르, 중합공정을 거쳐 PBAT를 생산한다. 나노셀룰로즈 보강재 기술 및 SKC가 40여년 간 축적한 노하우로 공정을 효율화해 투자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끝

어울렸다. 현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신재생에너지로만 필요한 전력의 100%를 충당하는 'RE 100(Renewable Energy 100%)' 을 실행한다.

SK리비오 측은 “‘썩는 플라스틱’인 PBAT는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하면서도 매립 시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돼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기존 PBAT는 내구성이 약해 용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천연 보강재인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하는 독자 기술로 고강도 PBAT를 개발, 농업용 필름이나 포장재, 용기뿐 아니라 섬유, 부직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SK리비오는 생산시설 건설과 현지 친환경 생분해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베트남 최대 플라스틱 제조사인 양팻사(社)와 협력하기로 했다. 양팻사는 SK리비오 베트남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와 함께 PBAT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글로벌 주요 지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박원철 SKC 사장은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소재 중 하나이지만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SK리비오 생산시설 착공을 통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SKC와 SK리비오의 원대한 꿈의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철 사장과 양호진 SK리비오 대표 등 SKC 관계자, 최영삼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 베트남 쩡 루 팡 부총리와 하이퐁시 레 띠엔 저우 당서기 등 현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식품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 6개 품목 8종 박스에 로고



▲ 멸균팩 재활용지가 적용된 베지밀 검은콩 두유 고칼슘 24분 박스.

정식품이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를 적용했다.

9일 정식품에 따르면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패키지는 베지밀 24분의 자동으로 조립되는 박스 모든 라인이 대상이다.

멸균팩을 재활용한 종이로 만들었다는 로고를 6개 품목 8종 박스에 적용했고 박스 전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은 지난해 9

월 정식품을 포함한 제조사 12개사, 한솔제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모두 14개사가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이다.

정식품은 제품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식품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멸균팩을 재활용한 종이를 포장 박스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자체 브랜드(PB) 컵 커피가 출시 7년 만에 포장재 디자인 등 리뉴얼(재단장)된다.

세븐일레븐

PB 컵 커피, 포장재 디자인 등 리뉴얼

출시 7년 만에 프리미엄급 리뉴얼

13일 세븐일레븐 등에 따르면 리뉴얼 출시되는 컵 커피는 세븐셀렉트 카페라테와 바닐라라테, 캐러멜마키아토, 카페모카, 아메리카노 등 모두 5종이다.

포장재 디자인은 카페라테가 파랑, 아메리카노 빨강 등 5가지 색상을 바탕색으로 변화를 줬다.

세븐일레븐을 상징하는 숫자 ‘7’도 리뉴얼 됐다. 숫자 ‘7’의 이미지 안에 커피를 상징하는 물결을 넣어 원료의 깊은 맛을 형상화하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렸다.

카페라테 등 우유 베이스 컵 커피 4종은 원유 함량을 50% 이상 맞춰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아메리카노는 커피 추출액을 기존 대비 0.5배 늘려 풍부한 원두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컵 커피는 2018년 출시 후 누적 5500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PB 제품 프리미엄 전략에 따라 세븐일레븐은 PB 컵 커피 포함, 다른 카테고리 PB 상품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필립모리스

주요 편의점 광고 보드 디지털로 교체

“플라스틱 사용 연간 최대 5톤 감소 효과”

한국필립모리스가 편의점 내 메인 광고 보드의 디지털화를 통해 친환경 행보에 나선다.

5월 14일 한국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전국 주요 편의점 1400여 곳의 메인 광고 보드를 디지털 보드로 교체했거나 교체할 예정이다.



▲ 편의점 내에 설치된 광고 보드의 디지털화된 모습.

한국필립모리스는 이 같은 활동 결과 매년 5~7회 설치·교체되는 인쇄 광고물로 인한 폐기물이 줄어 연간 최대 약 5톤(t)의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교체되는 광고 보드에 제품 광고, 공익 광고 및 청소년 흡연 예방 콘텐츠 등을 게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플라스틱 소비량 감소를 위해 전국 편의점, 직영 매장 등 판매 채널에서 사용되는 일부 광고물 및 배송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사용한 아이코스 기기나 전용 타바코 스틱인 ‘히츠’, ‘테리아’를 수거해 재처리 또는 폐기하는 ‘모두모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양산공장에서선 최근 미세 녹조류와 재생수, 태양열을 활용하는 친환경·고효율 탄소저감 실증화 시설을 준공해 탄소 저감, 자원 순환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성케미컬

생분해성 포장재 상용화 박차

바이오플라스틱 컴플렉스 울산공장 오픈식

동성케미컬이 생분해성 포장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동성케미컬은 생분해성 포장재 공정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동성케미컬 바이오플라스틱 컴플렉스(Dongsung Chemical Bioplastic Complex)’를 울산공장에 구축하고 4월29일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성케미컬에 따르면 바이오플라스틱 컴플렉스는 생분해성 포장재 ‘에코비바(ECOVIVA®)’ 제품 개발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에 걸쳐 구축한 이노베이션 테크센터로 에어캡, 비드폼, 멀티레이어 필름 공정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 4월29일 동성케미컬 울산공장에서 열린 '동성케미컬 바이오플라스틱 컴플렉스' 오픈식에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백정호 동성케미컬 회장, 백진우 동성케미컬 대표이사, 진인주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회장, 이만우 동성케미컬 대표이사.

동성케미컬은 지난 2022년 에어캡, 최근 비드폼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바이오 플라스틱 컴플렉스'를 오픈, 본격적으로 '에코비바' 제품 상용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아이스팩을 새롭게 출시해 제품 라인업을 하고 국내 시장에 콜드체인 물류 포장 토탈 솔루션 제공

후 내년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에어캡은 택배, 비드폼은 전기전자·스포츠용품, 멀티레이어 필름은 산업용을 추가 개발해 제품 용도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동성케미컬의 '에코비바'는 100% 바이오매스 원료 기반 친환경 생분해성 포장재로 석유화학 원료 기반 포장재의 보냉, 완충 기능은 유지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백정호 동성케미컬 회장은 오픈식 기념사를 통해 "동성케미컬 바이오플라스틱 컴플렉스는 국내 유일의 바이오 폴리머 테크센터로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포장재를 개발해 환경은 물론 인류의 편리한 삶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식에는 진인주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회장을 비롯해 우충길 울산 서울주소방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백정호 동성케미컬 회장, 백진우·이만우 동성케미컬 대표 등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CJ제일제당

카카오메이커스와 핫반 용기 재탄생 시킨다

핫반 용기에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메시지 담아

CJ제일제당이 카카오메이커스와 손잡고 핫반 용기 재활용(업사이클링)에 본격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카카오메이커스와 사용된 핫반 용기를 수거해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핫반 용기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4월 2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회수한 핫반 용기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분리·세척해 원료로 만들고 카카오메이커스가 이를 활용해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핫반 용기 새가버치 프로젝트’에 선정된 5천 명의 참가자에게 수거용 박스가 제공되며 오는 7월 1일까지 30개 이상 핫반 용기를 담아 돌려보내면 된다. 업사이클링된 제품은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핫반 용기 새가버치 프로젝트’ 참가자 중 5백 명을 선정해 ‘환경을 생각한 핫반’을 증정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탄소중립 캠페인’도 진행한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4 지구의날, 기후변화주간’ 동참 일환으로 ‘환경을 생각한 핫반’ 제품 패키지에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담아 운영한다. ‘환경을 생각한 핫반’은 바이오 순환 소재(Bio-circular PP)를 사용해 기존 핫반 용기 대비 용기의 탄소 발생량을 17% 줄인 제품이다. 기존 핫반과 제품의 원재료, 조리법, 밥 맛 등은 동일하며 용기도 씻어 분리배출 시 재활용이 가능하다.

오토닉스

레이저 스캐너 LSE3 시리즈 출시

“넓은 범위 물체 정확히 검출, 다양한 분야 적용 가능”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 오토닉스(대표이사 박용진)가 2D 90° 4채널 레이저 스캐너 LSE3 시리즈를 출시해 LiDAR 제품군을 강화한다.

최근 오토닉스에 따르면 LiDAR는 ‘TOF (Time of Flight) 측정 방식’으로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하고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로 변환하는 센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LSE3 시리즈는 검출 각도 90°, 최대 10x10m 범위 내 물체를 검출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자 환경에 맞춰 최소 1개부터 4개까지 활성 채널을 사용해 검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5G 이동통신 중계기의 고출력에 대한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하우징을 적용해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레이저 스캐너의 오작동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안개(Fog), 파티클(Particle) 필터 기능으로 안개, 비, 눈, 먼지 등으로 인한 검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포인트 가시 레이저를 지원해 센서가 스캐닝하는 영역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LiDAR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인 atLiDAR를 지원해 Ethernet 통신으로 파라미터 설정 및 모니터링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파라미터 설정 및 상태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오토닉스 측은 “신제품은 넓은 범위 내 물체를 유연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어 OHT, AGV, AMR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